

## 대학생의 색채 선호와 색채 의미

제기연<sup>1)</sup> · 이경희<sup>2)</sup>

<sup>1)</sup>부산대학교 의류학과

<sup>2)</sup>부산대학교 의류학과/노인생활환경연구소

## Color Preference and Color Meaning of University Students

Gi-Yeon Je and Kyoung-Hee Lee

<sup>1)</sup>Dept.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sup>2)</sup>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see what is the color preference for college students and the meaning of color, based on color psychology. The subjects are the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nd the survey is conducted in March 2009, September 2009. Analysis is based on eight kinds of colors such as red, orange, yellow, green, cyan, blue, purple which are used in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Howard & Dorothy Sun Corporate CRR (Colour reflection reading), and words representing the meaning of colors. A total of 259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data and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PSS 14.0 statistical package. First, by examining the best three colors among eight colors, the red which represents sociable and passionate leadership and a lot of energy was the first. Second, in terms of positive and negative sense, the green is stable, protected, red is passionate, strong, yellow is bright, happy and green is 'clean, young. The Blues has peaceful, tranquil image', the orange is lively animation, cheerful, and the purple shows a positive meaning of beautiful, precious, often mature, loving. Third, the preferences of boys and girls to compare colors in the first preferred colo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Most boys prefer blue, while the girls like red the most. Both boys and girls look at the meaning of green color with the most positive sense and especially male students have the negative connotation about the green color than female students.

**Key words:** color preference, color meaning, color psychology

### 1. 서 론

색은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람들의 생활환경, 기호, 의식, 성별, 연령, 기억, 체형 등에 따라 개개인이 선호하는 색채도 각각 다르며 변화한다. 색채는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패션,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상품기획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으로 색채선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다. 현재는 이러한 색채가 감성적 욕구를 위한 뿐 아니라 개개인의 심리적 정서를 알아보는 요인으로도 많이 활용되어지면서 색채 심리나 컬러테라피 등 심리적, 치료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선호색채나 선호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는 선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선호색에 관한 연구(조성희, 이은주, 2008; 김유정, 2006; 최미영 외, 심영완, 신혜영, 2006; 박혜령 외, 2005), 의복선호색

에 관한 연구(김재숙 외, 2004; 이명희, 김미영 2003; 김미영, 2002; 류숙희, 김보연, 2001; 김영인 외, 2000b; 김영인 외, 고애란, 홍희숙, 2000a)등으로 의류학 분야에서는 선호색과 의복 선호색의 비교 연구 등 의복 선호색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상의 연구는 선호색과 의복선호색 비교나 성별, 지역, 계절, 품목 등의 여러 변인에 대한 의복선호색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선호색과 색채의미의 관계나 심리적인 색채측면에서의 접근은 아직 미흡하다.

과거 색채가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현대는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로 진행되면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 음식과 주거에서는 최근 색채 심리의 활용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의류학분야에서도 단순히 선호색을 알아보는 것에서 보다 나아가 정서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색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개인적 삶의 질, 건강 상태 등을 개선시킬 수 있고 개인의 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힘이 있기에 현대인들에게 있어 색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색채심리에 기초하여 대학생들이 선호

Corresponding author; Gi-Yeon Je  
Tel. +82-51-510-3609, Fax.  
E-mail: mrmr77@hanmail.net

하는 색채와 색채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단순히 대학생들의 선호색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선호색을 통해 심리적 특징을 알아보고 색채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와 선호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사람은 개인마다 선호색이 다르고 우리는 그 색을 통해 성향을 파악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난색계는 밝고 따뜻한 색으로 활기와 적극성을 지니며 한색계는 차갑고 냉정함, 차분함 등을 지닌다. 이러한 색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의 환경, 성향,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선호색과 관계가 있다.

### 2.1. 색채 선호

색채 선호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색채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김미영, 2002)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 경험 등에 의해 형성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색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어린이 시절의 색채 선호는 빨강, 파랑, 초록, 자주, 주황, 노랑이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파장이 긴 장파장을 단파장의 색보다 선호하며 파랑, 빨강, 초록, 보라, 주황, 노랑의 순으로 선호한다(Faber Biren, 1956 /2003). 또한,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원색계열과 밝은 색조를 연령이 높을수록 단파장을 선호하고 남성은 비교적 어두운 색조를 선호하고 여성은 밝고 맑은 색조를 선호한다(최미영 외, 2006). 연령별 선호색채에서 조성희, 이은주(2008)는 일반색채 선호에서 청년은 PB와 GY에 대한 선호가 높고, 노인은 RP에 대한 선호가 높다. 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에 구분없이 pale, bright, vivid톤과 같은 밝거나 색감이 있는 톤을 선호하고 청년은 pale 톤의 PB를, 노인은 pale 톤의 RP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선호 색채에서는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YR, BG 등이 높은 비선호를 보였으며 특히 R은 선호색이면서 비선호를 가지는 색상으로 나타났고 청년은 vivid톤의 YR을 가장 선호하지 않으며, 노인은 vivid 톤의 R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김미영(2002)은 20대와 4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색채 선호는 주로 파랑 계열과 남보라 계열 등 한색계열의 선호가 높은 편이며 주황계열, 노랑계열의 등의 난색계열은 선호가 낮다고 하였다. 이명희, 김미영(2003)은 유행몰입도, 연령, 신체치수에 따라 선호색은 차이가 있으며 연령별에서 노랑계열은 선호도와 소유도가 낮은 편이며 파랑계열, 무채색 계열은 모든 집단에서 선호도와 소유도가 높은 편이나 20대 집단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행색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톤은 20대 집단이 비비드 톤과 페일 톤, 다크 톤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정미란, 안옥희(2005)는 대학생의 선호색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은 난색, 한색, 무채색, 중성색의 순으로 선호하며 대학생 다수는 혐오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을 한 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색으로 난색, 한색, 중성색, 무채색 순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박혜령(2000)은 20대를 대상으로 Red, Yellow, Green Blue, Purple의 5가지 색상에서 일반적인 선호도와 의복색상으로서의 선호도 사이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Red, Yellow에서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며 지역 간에도 색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남녀 성별에서는 남성의 색채선호는 무채색이 가장 높으며 파랑, 노랑, 빨강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톤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톤은 페일 톤, 비비드 톤, 덜 톤, 다크 톤의 순으로 선호한다고 하였다(류숙희, 김보연, 2001). 박혜령 외(2005)는 남녀 성별에 따른 색상 선호도와 차이에는 노란색상이, 나이에 따른 선호도 차이는 노란색상과 보라색상이, 서울과 목포, 제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빨강색상이, 계열전공에 따른 차이는 빨강색상과 노란색상이, 의류전공과 비의류전공의 색상선호의 차이는 보라색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선호색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 한색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 2.2. 색채 의미

색채는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의미 전달의 역할을 한다. 색채 의미는 선행연구들에서 색채 연상이나 색채 이미지로 나타나는 어휘들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

Table 1. 색채선호에 관한 선행연구

분류	연구자	연구내용
연령	조성희, 이은주 (2008)	청년은 PB와 GY, 노인은 RP에 대한 선호가 높음
	최미영 외 (2006)	연령이 낮을수록 원색계열과 밝은 색조를 연령이 높을수록 단파장을 선호하며 남성은 어두운 색조를, 여성은 밝고 맑은 색조를 선호
	정미란, 안옥희 (2005)	대학생은 난색, 한색, 무채색, 중성색의 순으로 선호
	이명희, 김미영 (2003)	20대가 파랑계열, 무채색 계열을 특히 선호하며 비비드 톤과 페일 톤, 다크 톤을 선호
	김미영(2002)	20대와 40대 이상의 여성은 파랑 계열과 남보라 계열 등 한색계열의 선호가 높은 편이며 주황계열, 노랑계열의 등의 난색계열은 선호가 낮음
성별	박혜령(2000)	20대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선호도와 의복색상으로서의 선호도는 특히 Red, Yellow에서 차이가 뚜렷함
	박혜령 외(2005)	남녀 성별에 따른 선호도에선 노란색이, 나이에 따른 선호도에선 노란색과 보라색에서 차이가 나타남
	류숙희, 김보연 (2001)	남성의 색채선호는 무채색이 높고 파랑, 노랑, 빨강 순이며 톤은 페일 톤, 비비드 톤, 덜 톤, 다크 톤의 순으로 선호

다. 색은 유전인 동시에 학습되어진 것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색의 의미는 개인의 성향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유년기는 개인차가 심하긴 하지만 자연현상과 관련 지어 연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성인이 되면서 문화, 사회 등 범위가 넓어진다. 이는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질감, 음영, 색조, 농도의 감성을 전한다(주미경, 2007). 색채의 온난감에서 명암, 선명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난색은 행복하게, 자유롭게, 발달하게 보이며 한색은 온화하게, 경험이 풍부하게, 성숙하게 보인다(김영인 외, 2000b). 따뜻한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위환경에 의한 감성이 예민하고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며 모든 정신적 기능이 서로 신속하고 강하게 통합된다고 보며 차가운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위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초연한 태도를 보이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냉담, 주관적인 경향을 가진다(류화정, 2006). 주미경(2007)은 20대는 빨강을 포근하고 따뜻하게, 주황을 상큼하고 따뜻함, 노랑은 귀엽고 상큼함, 연두는 편안하고 활기찬, 초록은 상쾌하고 안정감, 청록은 두렵고 시원함, 파랑은 차갑고 무서운, 남색은 시원하고 냉정함. 보리는 신비하고 답답함, 자주는 화려하고 먹고 싶음의 의미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심리적 측면에서 빨강은 삶, 힘, 생명력의 상징하며 주황은 기쁨과 행복의 색, 노랑은 사고의 힘과 지적인 힘이 있다. 초록은 균형과 조화의 색이며 또한 자연의 색으로 대표되는 색으로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색(권영걸, 박자은, 2004)이고, 파랑은 평화, 침착성을 상징, 보리는 자기존중과 존엄의 색(권기덕, 1998)이다. 색채심리 연구가 스에나가타 미오(1998/2001)는 인류가 최초로 의식한 유채색인 빨강은 원초적인 외침·에너지·파멸을, 노랑은 밝음·따뜻함·기쁨 그리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빛의 색이며 초록은 감정의 안식과 회복·평안함·균형과 안정감을 준다고 하였다. 파랑은 상실감과 재생의 두 가지 감정을 반영하고 보리는 발강의 요소와 파랑의 요소를 둘 다 가진 색으로 사랑과 증오·강함과 약함·희망과 절망 등 상반된 마음의 균형의 색이라고 하였다.

### 3. 연구방법

대학생의 색채 선호와 대학생들이 연상하는 색채 의미를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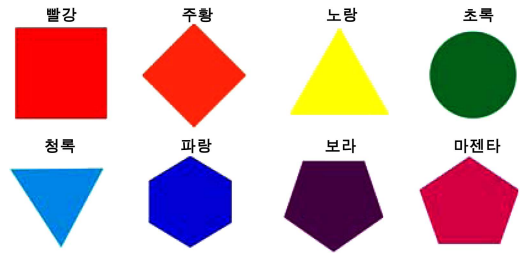


Fig. 1. 8가지 기준 색

아보기 위해 부산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2009년 9월, 2010년 3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기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으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기준은 Howard & Dorothy Sun(1992/2003)의 색채심리 분석법인 CRR(Colour reflection reading)에 사용되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자주의 8가지 색 Fig. 1과 색채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색채 선택에서는 8가지의 색을 보고 선호하는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쓰도록 하였다. CRR의 색채심리에서 첫 번째로 선택한 색은 개인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색이고 두 번째 선택한 색은 현재를 의미하며 세 번째 선택한 색은 앞으로의 목표를 의미하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다음으로 8가지 색채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CRR(Colour reflection reading) 색채심리 분석에서 활용되는 색채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을 제시하여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청록, 보라, 자주는 각각 긍정적 의미단어 12개, 부정적 의미단어 12개로 각 색채별로 24개의 단어를 제시하였고 파랑은 긍정과 부정의 단어를 각각 11개씩 22개를 제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67부중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하고 남학생 73, 여학생 186부로 총 25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 14.0의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결과 및 고찰

#### 4.1. 색채 선호

대학생의 색채선호를 알아본 결과 첫 번째 선호한 색으로는

Table 2. CRR에 사용되는 색채의 특성

첫 번째 색	두 번째 색	세 번째 색
빨강 사교적, 지도적, 정열적, 적극적이고 정열적	에너지 조절, 인내심 필요 신체 힘을 길러야함	현실에 집중, 지치고 고갈, 재충전필요
주황 경쾌, 낙천, 솔직, 외향적	평온함과 편안함이 필요, 자신에게 시간투자	깊은 생각과 신중함 필요, 용감하고 즐겁기 필요
노랑 지배, 우월, 유창한 표현력, 책임감과 권위	꿈, 상상에 빠짐, 현실성 인식, 욕구불만과 불만족	긍정적, 현실적 행동, 휴식, 직감과 잠재력 활용
초록 능률, 성실, 부드러운, 온화, 조심스러움	연약함, 보호필요, 감정표현과 노력	새로운 관계형성과 기민함 필요,
청록 젊음, 결단력, 통찰력	예민한 감수성, 건강한 정체성 유지	변화와 도전정신 필요
파랑 부드럽고 온화, 소극적, 믿음직	침묵과 지식, 표현력 향상	융통성, 끈기 발휘, 현실인식
보라 위엄과 고상함, 예술성, 자신감 부족	리더, 자긍심 부족, 성실과 적극성, 끈기 필요	창의적, 치료능력
자주 친절, 온화, 애정, 사랑	자기에, 자신의 욕구표현	우월감과 지배, 여성적 성향 분출

빨강색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파랑(18.9%), 노랑(14.3%), 보라(12.4%), 자주(11.2%), 청록(8.9%), 초록(8.9%), 주황(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빨강과 파랑이 높은 것은 사교적이며 에너지가 많은 사람으로 적극적이고 강렬한 외향적인 성향과 천성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발산하는 내향적인 성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빨강과 파랑의 선호가 높은 것은 기존의 선호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선호하는 색으로는 파랑이 1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록(14.7%), 빨강(13.9%), 노랑(13.5%), 보라(13.1%), 청록(10.8%), 자주(8.9%), 주황(8.5%)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색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파랑은 침묵의 색으로 밖으로 자신을 좀 더 표현하고 우울증과 의기소침에 빠질 경향이 있어 말하는 습관과 표현력을 기르는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록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성향으로 감정 표현에 서툴고 억누르는 경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파랑과 초록의 선호가 높은 것은 적극적이고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연약하여 움츠러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한 학생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빨강은 에너지를 조절하여 자신을 자극하고 분발할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고 상상력에서 빠져나와 현실에 어울리며 욕구불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성향이 있음을 노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보라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끈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선호하는 색은 노랑과 보라가 각각 16.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록(15.4%), 자주(14.7%), 파랑(11.2%), 청록(10.4%), 빨강(10.0%), 주황(5.0%)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랑을 통해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있으며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태양빛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휴식이며 타고난 직관력, 잠재력을 활용하면 빛을 볼 수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혜를 갈고 닦고 자질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보라의 성향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색은 파랑과 빨강으로 이는 대학생은 난색과 한색을 선호한다(정미란, 안옥희, 2005)는 연구와 유사하며 주황색에 대한 선호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녀 대학생들은 적극적이고 부드러운 외·내향적 성향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긍정적인 행동과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의복색은 무채색 다음으로 파랑 색이며 노란색에 대한 선호가 낮은(김재숙 외 2004) 것을 볼 때, 대학생들에게 좀 더 긍정적이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노란색을 의복색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2. 색채 의미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를 통해 8가지 색채의 의미를 알아본 결과 초록, 빨강, 노랑, 청록, 파랑, 주황, 보라, 자주의 순으로 긍정적 의미의 단어를 더 많이 나타냈으며<Fig. 2>, 색채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 어휘는 <Table 3>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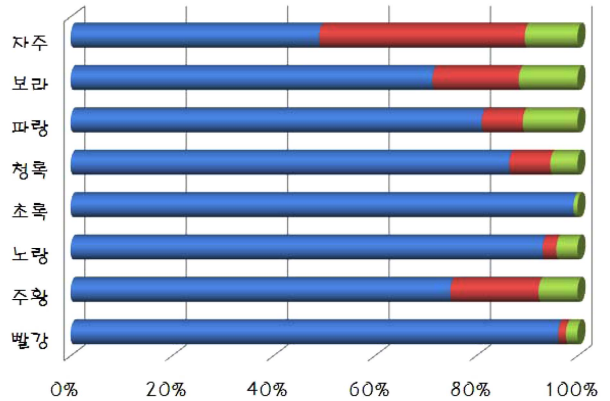


Fig. 2. 8가지 색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 분포도

Table 3. 긍정적,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초록	조화로운, 보호하는, 안정된	
빨강	강한, 정열적인, 활동적인	화난
노랑	밝은, 행복한, 낙천적인,	명청한
청록	젊은, 상상력이 풍부한, 깨끗한	변하지 않는
파랑	평화로운, 평온한, 믿음직한	적극적인
주황	생기발랄한, 쾌활한, 사교적인	신중함
보라	아름다운, 귀중한	혼자, 숨겨진
자주	성숙한, 사랑하는	이기적인, 오만한

초록은 99.2%가 긍정적 의미를 선택하여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는 색으로 평가되었으며 ‘안정된, 보호하는, 조화로운, 균형있는’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빨강은 긍정적 의미가 96.1%로 ‘정열적인, 강한, 활동적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미에서는 ‘화난’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노랑은 긍정적 의미가 93.1%로 ‘밝은, 낙천적인, 행복한, 가벼운’의 의미가 많이 나타났으며 ‘명청한, 어지러운’의 부정적 의미가 높게 나타났고 청록은 긍정적 의미가 86.5%로 ‘깨끗한, 젊은, 상상력이 풍부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미에서는 ‘변하지 않는’이 높게 나타났다. 파랑은 긍정적 의미가 81.1%로 ‘평화로운, 평온한, 믿음직한’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미는 ‘적극적인’이 높게 나타났고 주황은 긍정적 의미가 74.9%로 ‘생기발랄, 쾌활한, 사교적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미는 ‘신중함, 고독한’이 많이 나타났다. 보라는 긍정적 의미가 71.4%로 ‘아름다운, 귀중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미는 ‘혼자, 숨겨진’에서 많이 나타났고 자주는 긍정적 의미가 49.0%로 8가지 색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 되었으며 ‘성숙한, 사랑하는’의 긍정적 의미와 ‘이기적인, 오만한’의 부정적 의미가 많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은 초록에서는 부정적 의미가 거의 없어 아주 긍정적인 색으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주는 다른 색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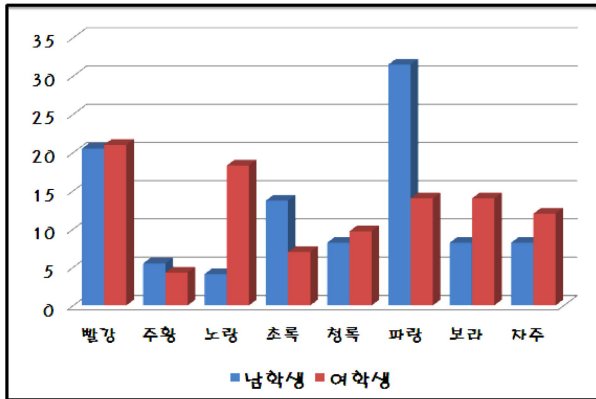


Fig. 3.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호색채 비교

### 4.3. 남녀학생의 선호 색채와 색채 의미 비교분석

남학생과 여학생의 색채 선호와 색채 의미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색채 선호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선택한 색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3>. 남학생의 선호 색채는 파랑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빨강(20.5%), 초록(13.7%), 청록(8.2%), 자주(8.2%), 보라(8.2%), 주황(5.5%), 노랑(4.1)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빨강이 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랑(18.3%), 파랑(14.0%), 보라(14.0%), 자주(12.0%), 청록(9.7%), 초록(7.0%), 주황(4.3)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파랑을 가장 선호하여 부각되는 반면 여학생은 빨강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란색에 대한 선호가 부각되어 나타났다. 이는 남자는 한색을 선호한다는 결과(조성희, 이은주, 2008)와 유사한 결과이다. 남학생은 내향적, 믿음직한 성향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남학생에게 파랑은 어린시절부터 사용되어온 익숙한 색이기 때문에 선호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여학생은 난색계열을 선호하며 사교적, 정열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성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색과 세 번째로 선택한 색에서는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선택한 색에서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초록과 파랑에서, 여학생은 빨강과 주황, 노랑에서 선호가 두드러졌다. 세 번째 선택한 색에서는 남학생은 보라와 파랑색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으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주와 청록의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색채 의미를 살펴보면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초록, 빨강, 노랑, 청록, 파랑, 주황, 보라, 자주의 순으로 긍정적 의미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황, 청록, 파랑, 보라, 자주색은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주황과 보라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긍정적 인상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보라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은 부정적 의미가 두드러진 반면 여학생은 긍정적 의미가 더 부각되었다.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초록은 남녀 학생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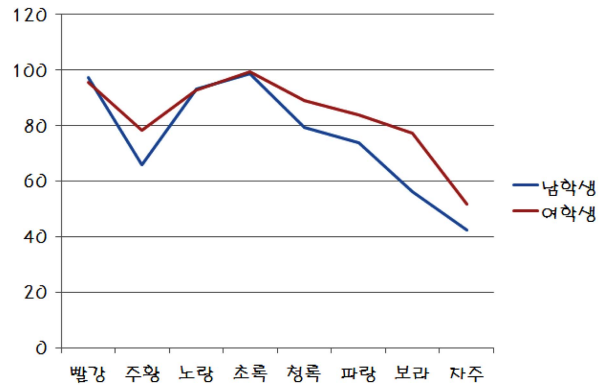


Fig. 4. 남학생과 여학생의 긍정적 색채 의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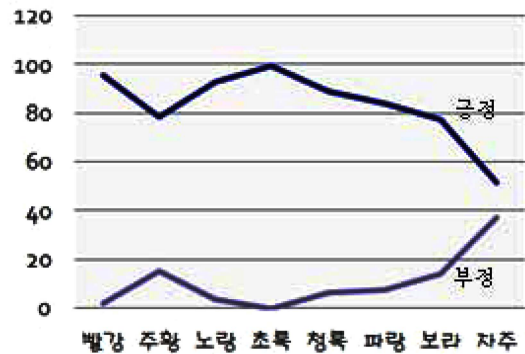


Fig. 5. 여학생의 긍정/부정적 의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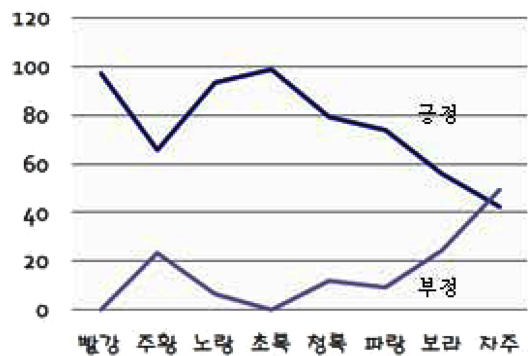


Fig. 6. 남학생의 긍정/부정적 의미 비교

두가 가장 긍정적으로 여기는 색으로 남학생은 ‘안정된, 보호하는’을 여학생은 ‘안정된, 조화로운’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빨강에선 남학생은 ‘강한, 정열적인’의 순으로 여학생은 ‘정열적, 강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미에서는 ‘화난, 불친절한’이 높게 나타났다. 노랑은 남녀 학생 모두 ‘밝은’의 긍정적 의미가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 의미는 남학생은 ‘어지러운, 비합리적인’, 여학생은 ‘멍청한, 어지러운’이 높게 나타났다. 청록에서는 남학생은 ‘젊은’이 여학생은 ‘깨끗한’의 긍정적 의미가



Table 4. 남학생/여학생의 색채의미 비교

색상	성별	남학생	여학생	남성 (주미경, 2007)	여성 (주미경, 2007)
		초록	긍정 안정된, 보호하는, 균형있는, 부정	안정된, 조화로운, 보호하는	편안함 싱그러운 푸르름
빨강	긍정 강한, 정열적인 부정 화난, 불친절한	정열적인, 강한 화난, 불친절한	따뜻함 온화함 정열	정열 따뜻함 온화함	
노랑	긍정 밝은, 행복한 부정 어지러운, 비합리적인	밝은, 낙천적인 멍청한, 어지러운	아름다움 시큼함 밝음, 찬란함	아름다움 밝은, 찬란함 산뜻	
청록	긍정 깨끗한, 젊은 부정 변하지 않는	깨끗한, 젊은, 상상력이 풍부한, 변하지 않는, 둔탁한	시원함 차가움 싱그러움	시원함 싱그러움 차가움	
파랑	긍정 평화로운, 평온한, 걱정없는 부정 적극적인, 우울한	평화로운, 평온한, 믿음직한 적극적인, 우울한	차가움 시원함	시원함 차가움	
주황	긍정 생기발랄한, 사교적인 부정 신중한, 고독한	생기발랄한, 쾌활한 신중한, 망설이는	새콤함 부드러운	새콤함 더움 따사로움	
보라	긍정 아름다운, 귀중한, 정숙한 부정 혼자, 숨겨진	아름다운, 귀중한, 자신감있는 혼자, 숨겨진	우아함 불안함 우울함	신비로움 고급스러움 어두움	
자주	긍정 성숙한, 사랑하는 부정 이기적인, 오만한, 냉담한, 불친절한	성숙한, 사랑하는 오만한, 이기적인, 완고한	아름다움 예쁜 화려한 유혹적인	여성스러움 예쁜 달콤한	

높게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미는 남녀 학생 모두 ‘변하지 않는’ 이 높게 나타났다. 파랑은 남녀 학생 모두 ‘평화로운, 평온한, 믿음직한’의 긍정과 ‘적극적인’의 의미를 높게 평가 하였다. 주황에서 남학생은 ‘생기발랄한, 사교적인’, 여학생은 ‘생기발랄한, 쾌활한’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에서는 ‘신중한’이 높게 나타났다. 보라는 남녀 학생 모두 ‘아름다운, 귀중한’의 긍정적 의미와 ‘혼자, 숨겨진’의 부정적 의미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주는 ‘성숙한, 사랑하는’의 긍정적 의미와 남학생은 ‘이기적인, 오만한, 냉담한, 불친절한’등으로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미경(2007)의 성별에 따른 색채연상과 비교하면 색채의미와 연상어의 차이는 있지만 보라색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인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Table 4>.

### 5. 결 론

첫째, 8가지 색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3가지의 색을 알아본 결과 첫 번째로 사교적이며 지도력이 있고 정열적인 에너지가 많은 빨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색으로는 자신을 좀 더 많이 표현하고 자신의 고요한 성향을 깨트려 적극적이고 표현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로 하는 파랑색이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색으로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행복을 끌어들이 수 있고, 직관력,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 빛을 발하게 되는 노란색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질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며 포괄적 의미의 치료의 능력이 있으며 지혜를 갈고 닦으면 좋은 보라색이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의 색채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노란색, 보라색 등을 의복색으로 활용해보면 더욱 의미있을 것이다.

둘째, 색채별로 살펴본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에서 초록은 ‘안정된, 보호하는, 조화로운’이, 빨강은 ‘정열적인, 강한, 활동적인’이, 노랑은 ‘밝은, 행복한’의 의미가, 청록은 ‘깨끗한, 젊은, 상상력이 풍부한’이 높게 나타났다. 파랑은 ‘평화로운, 평온한, 믿음직한’이, 주황은 ‘생기발랄, 쾌활한’의 의미가, 보라는 ‘아름다운, 귀중한’이, 자주는 ‘성숙한, 사랑하는’의 긍정적 의미가 높게 나타났다. 8가지 색 중에서 초록을 가장 긍정적인 색으로 인식하였으며 자주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색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연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흔히 면접 시 가장 신뢰감과 믿음직함을 주는 의복색으로 파랑색 계열을 사용하는 것처럼 각각의 연상되어지는 색채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의복색으로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의 선호 색채를 비교에서는 남학생은

파랑을, 여학생은 빨강을 가장 선호하여 남녀 간의 선호색에 대한 차이를 보였으며 빨강은 남학생에게도 선호가 높은 색이다. 색채 의미에서는 초록이 남녀 모두 긍정적 의미를 가장 높게 평가하여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색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성향과 환경, 익숙하게 사용되어진 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에서 빨강과 파랑이 선호도가 높은 반면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지니는 색은 초록색으로 나타났으며 자주색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많이 가지는 것에 비해 선호도는 낮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호색과 색채의미의 관계는 가장 선호한다고 하여 가장 긍정적 의미를 많이 가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호색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긍정적으로 여기는 색은 일반화, 보편적인 색채경향과 심리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학생들의 선호색을 통한 색채 성향과 색채 의미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나 개인의 심리적 건강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의복컬러로써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의복 선호색과 색채심리를 활용한 의복색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권기덕. (1998). 색채치료의 타당성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5(1), 487-504.  
 권영걸, 박자은. (2004). 색채 치료에 기초한 주거환경의 녹색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8(2), 1-11.  
 김미영. (2002). 일반색 · 의복색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특성 및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6(8), 1165-1176.  
 김영인, 고애란, 홍희숙. (2000a). 의복 이미지 선호에 따른 20대 여성 정장시장 세분화 및 색채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4(1), 3-14.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b).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964-975.  
 김재숙, 이소라, 강현옥, 조은옥. (2004). 남녀 대학생의 의복 디자인 및 색 선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7, 47-60.  
 류숙희, 김보연. (2001). 성인남성의 의복색채선호와 색채관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9(2), 308-318.  
 류화정. (2006). *컬러테라피의 활용 방안과 과제*.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령. (2000). 선호색상과 의복선호색상의 차이. *한국색채학회지*, 14(1), 29-35.  
 박혜령, 심규남, 박미령, 박영기. (2005). 조사자 일반적 특성요인에 따른 색상의 인지도와 선호도의 차이. *한국색채학회지*, 19(3), 83-91.  
 이명희, 김미영. (2003). 영향 변인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한국의류학회지*, 27(2), 188-199.  
 정미란, 안옥희. (2005). 대학생의 색선호와 자신의 이미지색에 관한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춘계논문집*, pp. 163-166.  
 조성희, 이은주. (2008). 연령에 따른 선호색채와 선호배색특성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3), 102-110.  
 주미경. (2007). 색 연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21(2), 19-29.  
 최미영, 심영완, 신혜영. (2006). BRICs 지역 소비자 색채선호 비교. *복식*, 56(5), 118-13.  
 스에나가 타미오. (2001). *색채심리* (박필임 역). 서울: 예경. (원저 1998 출판)  
 Faber Biren, (2003). *색채심리* (김화중 역). 서울: 동국. (원저 1956 출판)  
 Howard Sun, & Dorothy Sun. (2003). *내 삶에 색을 입히자* (나선숙 역). 서울: 예경. (원저 1992 출판)

(2010년 11월 16일 접수/2011년 1월 20일 1차 수정/  
 2011년 1월 20일 게재확정)